

주요용어 : 직무스트레스, 직업만족도, 여성건강, 정신건강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 : 간호사와 교사 그룹을 중심으로

홍경자¹⁾ · 탁영란²⁾ · 강현숙³⁾ · 김금순⁴⁾ · 박호란⁵⁾ · 곽월희⁶⁾ · 김정은⁷⁾ · 최정례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 직업관의 변화와 육아지원 정책 등 기존 여성의 취업이 과거에 비해 사회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여성들의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맞벌이부부와 같은 새로운 가족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정된다.

또한 전문직 취업 여성의 비율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1970년에 전문직 여성 취업률은 2.4%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11.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직은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가진 것을 일컬으며, 여성이 숫자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전문직으로는 간호사와 교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 남성에게 국한되었던 건강과 관련한 전문직 직무 스트레스가 근간에는 여성에게도 위협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무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심장 마비 등의 건강 문제를 남녀 모두에게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 문제는 전문직 조직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들어 여성 건강 관련 보고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상태를 호소하고 있으며,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압은 일을 마친 이후의 시간에도 여전히 상승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arvard Women's Health Watch, 1999, 2000). 또한 직업 관련 요인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계 조사 연구에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et al., 2000; Ochs, 2001). 특히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간의 관계 연구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직인 간호사 그룹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그룹이 가장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정신 건강의 문제가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Troman, 2000).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울시 간호사회 학술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3) 경희대학교 간호대학 4)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
5) 서울 아산 병원 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7) 서울시 간호사회

투고일 2002년 4월 16일 심사의뢰일 2002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2일

속적인 경제성장 및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요구증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 및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이는 여성의 직업이 대체로 불규칙적이며 일보다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이유 등으로 사회경제체계 속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이다(Jamal & Baha, 2000; Nelson & Burke, 2000). 더욱이 전문직 여성의 직업적 환경과 사회심리적,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고찰의 결과 다면적인 요인이 언급되는데(Pavalko & Smith, 1999), 전문직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능력 및 경험, 욕구 및 가치 등이 있고, 환경과 관련된 요인에는 물리적 환경, 직무의 고유특성, 조직역할, 조직구조와 분위기, 동료 및 상사와의 대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Kanter(1993)에 의하면 조직의 사회적 구조가 개인적인 속성보다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의 사회적 구조가 전문직 대상자들의 직무 능력에 영향을 주는 정보, 지지, 및 자원에의 접근성에 용이함과 효율성을 주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가져옴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전문직종인 간호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조직의 사회적 특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실증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Laschinger et al., 2001).

또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 만족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 만족이란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에서 발생되는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의 능률과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개인은 주관적으로 환경을 인지하고, 인지된 환경을 자신만의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되므로 직무특성과 취업구조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 가치, 욕구에 따라서도 직업 만족 정도는 달라진다. Munro 등(1998)은 전문직 중 정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직업 만족과 정신 건강에 유의한 예측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문직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업무관련 책임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연구에서는 주로 남성들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을 뿐, 여성에게 있어 전문직이 갖는 직무 스트레스의 특성과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되어진 것이 미진한 편이다. 특히 성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에 의해 아직 까지도 여성의 직업은 전문

직(Career)이기 보다는 일(Work)로 평가 절하되는 양상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연구 중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와 건강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전문직 취업 증가로 인하여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배우자, 가사, 육아와 노인에 대한 돌봄의 역할 등 여성의 다중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 전문직의 증가에 부응하는 사회적 지원 및 역할 변화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직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간의 관련을 파악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전문직 여성의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전문직 여성의 건강을 위한 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 건강의 정도와 이를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직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및 정신적 건강 문제 증상을 파악한다.
- 3)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문제 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전문직 여성의 직업 특성(간호사/교사)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의 차이를 확인한다.
- 5)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가 정신 건강 문제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전문 직종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사 그룹과 교사 그룹을 전문직 여성의 대상

2002년 8월

모집단으로 표집 하였다. 간호사 그룹은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10개, 교사 그룹은 서울시 소재 중 고등학교 15개를 편의 추출과 할당 추출하여 간호사 300부, 교사 300부를 해당 기관의 협조 하에 설문 회뢰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간호사 257부, 교사 278부로 총 53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9%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2. 연구 도구

1)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Robinson(1997)이 개발한 Work-Family Stress Inventory를 도구 개발자의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한국 문화와 전문직 여성의 직업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직 여성의 조직의 사회 심리적 구조 특성에 의해 인지하는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다변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도구로서 하부 영역으로는 직장 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리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량에 의한 스트레스, 업무수행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 직장 내 문화에 의한 스트레스, 업무작업에 의한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로 매우 적합함을 보였다.

2) 직업 만족도(Job satisfaction)

직업 만족도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직업 만족에 대한 전반적 정도를 자가 보고하는 문항으로 '매우 만족하다'에서 '매우 불만족하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된 단일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건강(Health)

건강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전반적 건강 상태와 객관적인 건강 지표로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을 측정하였다. 전반적 건강 상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편이다'에서 '아주 좋은 편이다'의 4점 척도로 자가보고 양식의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은 사회 심리적, 정서적 반응으로서 Profile of Mood States-Short Form

(Shacham, 1983)을 기초로 연구자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지난 1개월간 인지한 사회 심리 정서 반응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자가 보고토록 하였으며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92로 매우 적합한 신뢰도를 보였다.

3. 연구 자료 분석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전반적 건강 상태,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을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전문직종간 관련 변인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정신 건강 문제 증상에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기혼여성이 305명(57%), 미혼여성이 221명(41.3%)이며, 대상자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이 345명(61.9%), 석사학위 이상이 73명(13.7%)이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인 91.4%가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가사 노동 시간은 7일 기준으로 평균 8시간 미만인 대상자는 191명(35.7%)으로 가장 많은 비도를 보였고, 다음은 평균 8~15시간으로 124명(23.2%)이었다.

대상자의 연령 범주는 22세에서 55세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가족수는 평균 4명으로 전형적인 도시 학가족인 4인 가족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녀수는 평균 1.86명이고 첫째 아동의 나이의 범위는 0살에서 32살로 다양한 가족 발달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상자인 전문직 여성인 어머니의 평균 연령과 첫째 아이의 평균 연령인 9.83세를 중심으로 보면 연구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가족 발달 초기에서 학령기 가족의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8.6년, 현재의

지위에서 근무한 기간 또한 평균 8년으로 본인의 일에 있어서 적응되어 농숙한 단계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의 동료들과 함께 근무한 기간은 평균 4.66년이었으며, 일주일당 초과 근무 시간은 3.5시간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N=535)

Variables		Frequency (%)
Marital status	Married	305(57)
	Unmarried	221(41.3)
	Divorced	4(0.7)
	Widowed	1(0.2)
	Missing	4(0.7)
Education	College	118(22.1)
	B.S.N	331(61.9)
	Master	71(13.3)
	Doctoral	2(0.4)
	Other special degree	3(0.6)
	Missing	10(1.9)
Working Hours	8 hrs/day	345(64.5)
	9hrs/day	107(20.0)
	10 hrs/day	37(6.9)
	Others	28(5.2)
	Missing	18(3.4)
Domestic working hours	Not at all.	59(11.0)
	Less than 8hrs/Week	191(35.7)
	8~15hrs/Week	124(23.2)
	16~25hrs/Week	94(17.6)
	26~35hrs/Week	38(7.1)
	36~45hrs/Week	16(3.0)
	More than 46hrs/Week	4(0.7)
	Others	2(0.4)
	Missing	7(1.3)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의 서술통계

대상자 직무 스트레스는 1점(매우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범주에 평균 2.76(표준 편차 0.32)으로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Variables	Mean±SD	Range
Age(n 524)	33.7±6.87	22~55
Family size(n 432)	3.70±1.33	0~9
No. of children(n 261)	1.66± .59	0~3
Age of the first child(n 258)	9.83±6.71	0~32
Working periods in current job(n 520)	8.60±6.67	0~31
Periods in current position(n 513)	8.02±6.44	0~30
Periods in current group member(n 505)	4.66±4.99	0~28
Exceed working hours per week(n 307)	3.54±3.26	0.2~30

조금 낮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직업 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4점(매우 만족 한다) 척도에 평균 3.09(표준 편차 0.53)로 조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4점(아주 좋다) 척도에 평균 2.43(표준 편차 0.70)으로 조금 낮은 전반적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지한 정신건강 문제 증상 정도에 있어서는 5점(매우 그렇다) 척도에 평균 2.32로 다소 낮은 정도의 문제 증상을 나타냈다<Table 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교사 그룹으로 대표되는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비교적 높지 않고, 직업 만족도가 높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조금 낮은 반면,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부 요인별 정도를 살펴보면, 업무 스트레스는 평균 3.65, 그리고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평균 3.38로 업무 관련의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스트레스 요인은 관계 부서간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수행 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평균 2.79, 가치관 갈등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문화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평균 2.69, 직장 내 스트레스는 평균 2.59로 직장의 조직 구조적인 특성에 따른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조금 높은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중 낮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는 동료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리더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나 여성의 특성인 관계 지향적인 성향으로 직무 스트레스 중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소 낮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Score Range	Mean±SD
Job stress	1~5	2.76±0.32
Job satisfaction	1~4	3.09±0.53
Overall health	1~4	2.43 0.70
Mental health Symptom	1~5	2.32±0.58

2002년 8월

3.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간의 상관관계

전문직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 문제 증상과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업 만족과 부적인 상관관계($r=-.35$)를, 주관적으로 인지한 전반적 건강 상태와 부적 상관관계($r=-.26$)를, 정신 건강 문제 증상과는 경적인 상관관계($r=.36$)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와 교사에 있어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으며,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 건강 상태는 낮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 증상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직업 만족도와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 건강 상태는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r=-.19$)를 나타냈으나, 그 정도(magnitude)가 낮아 표본 수를 고려할 때 미미한 관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적 선형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업 만족과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을 부적인 중등도의 상관 관계($r=-.43$)를 보였다. 이는 직업의 만족의 정도에 따라 개인은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관련을 가지며, 정신 건강 문제의 증상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전반적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 문제 증상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

<Table 4> Pearson correlation among the study variables

	1	2	3	4
1				
2		-.353**		
3		-.262**	.189**	
4		.357**	-.425**	-.306**

** p < .01

1. Job stress
2. Job satisfaction
3. Overall health status
4. Mental health problem symptom

관관계($r=-.31$)를 보여,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가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의 정도와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전문 직종간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 비교

전문직의 직종간 차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 건강을 비교하기 위해 간호사 그룹과 교사 그룹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사 그룹과 교사 그룹 간의 비교에서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 수준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업무의 특성상 현대 사회의 학교 교육 체계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사의 전반적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사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중 업무의 직무 스트레스는 발전하는 의료 기술로 인해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한 간호사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 만족에 있어서는 교사가 간호사 그룹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 상태의 두 가지 지표인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 건강상태와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은 두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직 여성의 일반적 특성상 주요 변인인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 그룹에서의 기혼과 미혼 그리고 교사 그룹에서의 기혼과 미혼 그룹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 그룹간에는 직무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전반적 건강 상태, 정신 건강 문제 증상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기혼 교사가 평균 2.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혼 교사가 2.76, 미혼 간호사 2.75, 기혼 간호사 2.68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의 전문직종과 결혼 상태별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사후 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로 분석한 결과 기혼 간호사와 기혼 교사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했는데, 이는 기혼 여성간 직업

<Table 5> Group differences between nurses and teachers i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Nurses		Teachers		t	p
	M	SD	M	SD		
Job stress	2.71	0.32	2.79	0.31	-2.629	.009
Job satisfaction	2.99	0.52	3.19	0.51	-4.343	.000
Mental health problem symptom	2.37	0.63	2.28	0.52	1.900	.058
Overall health status	2.44	0.69	2.43	0.72	.190	.849

<Table 6> Within group differences among nurses and teachers by marital status

	Nurses		Teachers		F	P
	Unmarried	Married	Unmarried	Married		
Job stress	2.75±0.31	2.68±0.33*	2.76±0.30	2.81±0.32*	3.666	.012
Work-family stress	2.38±0.47	2.50±0.52	2.36±0.41*	2.52±0.47*	3.857	.009
Job Satisfaction	3.91±0.47**	3.06±0.56*	3.16±0.53*	3.20±0.50**	8.458	.000
Mental Health problem symptom	2.47±0.65*	2.28±0.60	2.31±0.57	2.26±0.49*	3.668	.012
Overall health status	2.40±0.63	2.47±0.74	2.43±0.69	2.43±0.74	.214	.887

Note. Mea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effe test,

* denotes at p<.05 and ** at p<.01

특성상의 차이로 직무 스트레스가 다른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직장과 가정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간호사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혼인 교사와 기혼 교사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그룹의 결혼 상태가 직장과 가정간의 스트레스를 다르게 인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는 미혼 간호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간호사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 기간과 환경적 적응으로 인한 전문성의 증가로 직무에서는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반면,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이 인지하는 기혼 간호사의 결과를 통해 직업과 가정의 다중 역할로 인해 직업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룹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혼 간호사와 미혼 교사간의 직업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미혼 간호사와 기혼 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에 있어 미혼 간호사와 기혼 교사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기혼 간호사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간호사 그룹이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으나, 직업 및 결혼상태를 중심으로 한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가 정신 건강 문제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전문직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을 관련 요인인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로 회귀 분석 한 결과,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은 직무 스트레스를 예측 변인으로 정적 영향을 받으며($B=-.24$, $p=.00$), 직업 만족도를 예측 변인으로 부적인 영향을 받아($B=-.35$, $p=.00$) 변량 23%를 설명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직무 스트레

스는 정적인 영향으로, 직업 만족은 부적인 영향으로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예측 요인으로 의미는 있으나,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을 예측 설명에 있어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 이외의 다른 변인들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 건강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직 여성 중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간호사와 교사를 대상 모집단으로 하여 전문직 특성을 고려한 직무 스트레스의 다면적 속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의 특성을 탐색해 본 결과 대체로 높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여성의 전문직 중 자율성과 지식이 균간이 되는 간호사와 교사라는 특정 전문직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 특성상의 직무 스트레스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에서의 여성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보다 낮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Cheng et al., 2000; Evans & Steptoe, 2002). 특히 이러한 결과가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영역별로 볼 때,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직장 내 조직 문화와 인간 관계등 사회 심리적 구조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소 낮은 점을 주목 할 때, 이는 직장에서의 여성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즉 조직 구조내에서 리더쉽 형태에 있어서 여성은 인간관계 지향적이고, 남성은 일 성취 중심적이어서 스트레스의 구조적 특성이 다르며, 여성의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는 높게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Gardiner & Tiggemann, 1999)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리더쉽 형태에 관한 연구(Eagly & Johnson, 1990)에서 보면, 남성 중심사회에서의 여성 리더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간관계 지향적인, 이른바 남성 지향적인 리더쉽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대의 남성중심 사회에서 비록 여성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조직 구성도 자체는 남성 중심적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남성 중심의 일 성취 지향적인 조직 목적으로 인해 높은 반면에,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낮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Evans & Steptoe, 2002). 전체 직무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 하부 요인들의 특정적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볼 수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에서 인간 관계의 낮은 스트레스 정도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의 사회 구조적 특성과 성차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 적인 측면에서 설명되어 질 필요가 있다.

전문직 여성의 직업 만족도는 다소 높은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의 자기 실현을 위한 직업을 가졌을 때, 지원, 권력, 사회적 정체성, 자아 존중감의 기회를 얻게 되어 직업에 대한 만족을 가져옴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이다(Pavalko & Smith, 1999; Russ, 2001). 또한 직업 만족도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감정의 상태로 보는 관점이 우세한데 (Jung et al, 2001), 특히 보상, 자율성, 역할, 상호 작용, 과업과 밀접한 상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이를 위한 보다 심층적 측정과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며, 건강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icker 와 August (1995)는 단순히 업무 만족도를 통해 업무 수행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과다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업 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에, 동시에 직무의 일치성과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직업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다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업 만족도에 부정적면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과다한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 문제 증상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이는 직무 과다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 양면적인 영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직업 만족도 및 정신건강 문제 증상과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Jamal과 Baha (2000)의 연구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하고 있으며,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건강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문직 중 직업적 특성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다른 간호사 그룹과 교사 그룹을 모집 단으로 표본 조사 한 연구이므로 이를 직종간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에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사 그룹이 간호사 그룹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었고 직업 만족도는 교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간호 업무와 관련된 일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사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교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Jamal & Baha, 2000; Linde, 2000),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정신건강 문제 증상에 있어서 간호사 그룹과 교사 그룹 간의 비교는 여성에게 있어서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특히 간호사와 교사의 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의 본질상 신체적임 육직임과 동시에 대상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사는 '가르침'이라는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지식 제공 및 청소년의 발달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즉 간호 업무는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교사의 업무는 교육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좀더 집중되어 있어 스트레스라는 용어에서 의미하고 있듯이 주관적인 인지에 의한 스트레스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업무의 직무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교사보다는 간호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위기 상황과 돌봄의 과다한 역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차이를 보이는 업무의 스트레스에 있어 간호사 그룹이 교사 그룹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점은 간호의 대상자 특성상 질병과 고통이라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간호사는 짧은 시간내에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시간과의 짜임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발전으로 인해 항상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위해 업무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외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강의 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일과 가정간의 갈등적 스트레스에서 그룹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직업 만족도와 정신 건강 문제 증상에서 그룹간 차이를 보였다. 결혼 상태가 여성의 전문직에 있어 가정과 직장이라는 다중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특성과 아직은 남성 주도의 조직 특성에서 결혼 상태에 따른 전문직 여성의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 건강에 대한 비교 분석은 남성과는 현저히 다른 사회적 특성에서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본다.

반면 건강증진 관점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점들이 결국에는 건강상태와 밀접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Laschinger et al., 2001; McBride, 1990). 즉, 취업으로 인한 수입증가,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회적지지, 지식향상 그리고 자아존중감 증가는 개인의 건강수준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게 된다. Nelson & Burke (2000) 연구에서는 취업을 통한 다중역할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였다. 다중역할로 인한 긴장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지위 측면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전문직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의 발현과 관련되는 인자 중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가 선행 연구에서 주지되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전문직 여성의 정신 건강은 직무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주 영향을 받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업 만족도와는 중등도의 직접적인 주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변인,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는 정신 건강 문제 증상의 약 23%정도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직 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건강 간의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매우 미진한 것과 여성의 남성 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질병 상태를 호소함을 주지하는 국외 연구(Heslop et al., 2001;

Laschinger et al., 2001; Russ, 2001)를 기초로 국내에서의 전문직 여성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전문직 여성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위한 건강 증진과 예방 차원에서의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호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직무의 고유 특성과 조직 구조, 조직의 사회심리적 환경으로의 대인관계등이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하부 요인임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Ahn, 1999; Cheng, et al., 2000; Jung et al., 2001; Sakong et al., 1997)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다소 낮은 반면, 직업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두 가지 지표 중 전반적 건강 상태를 대상자가 인지하는 정도는 조금 낮은 정도를 보이나, 정신 건강 문제의 증상은 다소 낮게 나타나 전문직 여성의 정신 건강 측면은 주관적 건강 상태 보다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업 만족도에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직 여성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 특성에 있어서 간호사와 교사 간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에 상이한 차이를 보였고,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가 단연 높은 반면에 직업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 하부 영역인 업무의 작업 스트레스에서는 간호사가 단연 높은 결과를 보임으로, 이는 간호사와 교사 간의 직무적 특성과 조직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에 있어 다양한 직무적 특성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포함하는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 요인과 직무 특성, 조직의 사회 심리적 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균간으로 하는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부 전문직 여성으로 특정 병원과 학교만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전문직 여성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자가 보고의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References

- Ahn, M. S. (1999). mental stress and stress factors of female workers, *Korean J Occup Health Nursing*, 8(2), 141-155.
- Cheng, Y., Kawachi, I., Coakley, E. H., Schwartz, J., & Colditz, G. (2000).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work characteristics and health functioning in American women: prospective study. *British Medical J*, 320, 1432-1436.
- Eagly A. H., & Johnson, B. T. (1990). Gender and leadership style : A meta-analysis, *Psychol Bulletin*, 108, 233-256.
- Gardiner, M., & Tiggemann, M. (1999). Gender difference in leadership styl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in male- and female-dominated industries, *J Occup Org Psychol*, 73(3), 1999.
- Harvard Women's Health Watch* (2000), 8(1), 1-3.
- Harvard Women's Health Watch* (1999), 7(2), 1.
- Heslop, P., Smith, G. D., Macleod, D., & Hart, C. (2001). The socioeconomic position of employed women, risk factors and mortality. *Soc Sci Med*, 53, 477-485.
- Jamal, M., & Baha, V. V. (2000). Job stress and Burnout Among Canadian Managers and Nurses : An Empirical Examination, *Ca J Pub Health*, 91(6), 454-458.
- Jung, H., Kim, H., Lee, H., Yi, Y., & Kwon, Y. (2001).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factor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f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 Occup Health Nursing*, 10(1), 83-109.
- Kanter, R. M. (1993).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 Kneipp, S. M.(2000). The health of women in transition from welfare to employment. *Wes J Nur Res*, 22(6), p. 656-682.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National Statistical Data*.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eoul Korea.
- Laschinger, H. K. S., Finegan, J., & Shamian, J. (2001). Promoting nurses' health: effect of empowerment on job strain and work satisfaction. *Nurs Econ*, 19(2), 42-52.
- Lee, S. M. (1995).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factor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J of Korean Acad Nurs*, 25(4), 790-806.
- Linde, C. (2000). The teacher's stress and it's implication for the school as an organization : How can TQM help? *Education*, 121(2), 375-382.
- McBride, A. (1990).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Am Psychol*, 45, 381-384.
- Munro, L., Rodwell, J., & Harding, L. (1998). Assessing occupational stress in psychiatric nurses using the full job strain model: The value of social support to nurses. *Int J Nurs Stud*, 35(6), 339-345.
- Nelson, D. L., & Burke, R. J. (2000). Women executives; Health, stress, and success. *Acad Manag Exec*, 14(2), 107-121.
- Ochs, J. (2001). Job-relates fatigue during first pregnancy may cause early membrane rupture. *Fam Plan Pers*, 33(3), 138-139.
- Pavalko, E. K., & Smith, B. (1999). The rhythm of work Health effects of women's work dynamics, *Soc Forces*, 77(3), 1141-62.
- Robinson, J. D. W. (1997). Employment and family: reconciling work place and family linkages among dual-earner families. Unpublishe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uss, D. (2001). Workload, Stres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 Res Devel Quar*, 12(1),
- Sakong, J., Chung, J., & Kim, H. (1997).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psychosomatic strain and gastrointestinal symptom *Korean J*

- Occup Med*, 9(3), 530-542.
- Shacham, S. (1983). A shortened version of the profile of mood states, *J Pers Assess*, 47, 305-306.
- Troman, G. (2000). Teacher stress in the low-trust society, *Br J Soc Edu*, 21(3), 331-353.
- Wicker A. W., & August, R. A. (1995). How far should we generalize? The case of workload model. *Psychol Sci*, 6, 39-44.

- Abstract -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of Women Who Work in the Professional Job: Nurses and Teachers

Hong, Kyung-Ja¹ · Tak, Young-Rat²
Kang, Hyun-Sook³ · Kim, Keum-Soom⁴
Park, Ho-Ran⁵ · Kwag, Wed-Hee⁶
Kim, Jeong-Eun⁷ · Choi, Jung-Rye⁷

Purpose: This research study explores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of women who works in the professional work place and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mental health status focused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structure of the workplace.

Method: 535 participants of registered nurses and teachers from 10 General Hospitals and 15 Middle and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Korea were completed the modified version of the short form Work-family stress inventory of questionnaire as used for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problems and perceived overall health status and job satisfaction.

Result: Job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overall health, and mental health. There were als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nurses and teachers. Multiple regression only moderately supported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mental health of professional working women. Also marital status demonstrated a significant factor of group differences in job stress, work-family stress, job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job stress in the work place has profound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health of women who work in the professional job. This study also identified major sources and types of work-related stress on women's health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a management for health promotion.

Key words : Job stress, Job satisfaction, Health, Mental health

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3)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4)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5) Asan Medical Center, Seoul, Nursing Department
6)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7) Korean Nurse Association, Seoul